

家族研究에 있어서 라이프 코ース(Life Course)* 접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ife Course Approach in Family Studies

기사수 : 16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李 實 淑

기사입력일 : 2005-10-14 최은정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In-Soo Lee

1929-1931.

차

IV. Life Course 관점을 적용한 가족연구 고찰

V. 맷 음 말

참고문헌

제작일자 : 01/02

제작일자 : 2005-11-3 16:50:11

II. Life Course 관점의 개념틀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on life course as a perspective in family studies. Life course approach on family studies have been emerged since 1960. This approach, which is challenging accepted knowledge and theory, partly reflects a shift in analytic perspective from structural models to a more behavioral thrust that views as a actor in structured situations. Life course approach is a theoretical orientation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linkage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development in context of changing historical context. Life course approach contributes time, process, and context to receiving i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family and kinship.

I. 머리말

*'Life Course'는 우리말로 명확하게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용어이다. 직역을 하자면 '생애 과정'이라고 옮길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의 원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 용어에 대한 번역상의 문제는 앞으로 Life Course 접근자체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함께 좀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원래의 용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Life Course Approach는 1960년 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지금까지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낳고 있는 가족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모리오카 기요미리를 주축으로 하는 The Family and Life Course Study

Group이 1982년에 결성된 이래로 Life Course 관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접근 방법에 입각한 가족 연구는 물론이거나 Life Course 관점 자체에 대한 소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외국에서 어떤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산출한 방법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국 가족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Life Course 관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의 가족연구에 있어서 Life Course 관점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성립된 과정에는 기존의 가족 연구 방법들에 잠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학문적인 노력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Life Course 관점은 단순히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성립된 것이기보다는, 가족 연구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관점을 창출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의 결과로서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외국 이론을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가족연구에 활용하는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듯이,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해보지 않고 외국 이론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목표는 Life Course 관점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가족연구에 있어서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우선 Life Course 접근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이 성립하기까지의 배경과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본 다음, 끝으로 Life Course 관점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고찰한 실제 논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Life Course 관점의 발생배경

미국에서 life-course 관점이라는 가족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이 성립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어떤 학문적인 연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방법이 그 대상을 적절히 해명할 수 없다는 반성적인 성찰 속에서, 기존의 방법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 방법의 성립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이와 같은 사정은 Life Course Approach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Life Course 관점도 기존의 분석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비판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 가족과 친족에 관한 사회학적 견해의 지배적인 흐름은 거시적인 구조주의적(structural) 분석과 미시적인 행동주의적(behavioral) 분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Elder, 1984). 구조주의적 분석은 주로 사회와 가족 그리고 그들 관계의 사회체계나 구조적 속성을 관점을 두는 것이며(Parsons, 1951), 행동주의적 분석은 개인과 가족의 상호작용,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前者에는 Parsons 와 같은 기능론자나 장기간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는 사람(Goode, 1963; Smelser, 1955)들이 속하며, 後者에는 사회적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속한다(Elder, 1984).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분석틀은 미국의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발생한 가족과 사회의 중심 문제들의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각 시기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들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분석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욱 선호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결국 Life Course 관점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성립된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이전에 주된 관심을 모았던 “사회진화론”이 퇴조하면서, 20세기 미국 가족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변화하는 가족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변화로 인한 가족내 관계와 상호작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집중과 함께 부상하게 된 것이 바로 미시적 수준의 행동주의적(behavior-

ral) 분석이었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동안 Chicago 학파는 행동주의적 분석에 의존하는 연구자들의 知的 온상의 역할을 담당한 학파였다. 이들은 가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정확한 문제설정, 철저한 연구설계, 경험적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결합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하였다. 이 시카코 학파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로서는 Thomas 와 Burgess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같은 행동주의적 분석에 의존하였으나 그 관점은 서로 달랐다. 즉, Burgess(1939)는 가족 내 관계 측면과 개인발달에 초점을 두지만, Thomas(1928)는 친족·문화·역사의 변동 등 보다 광범위한 상황 속에서 비롯되는 가족역동성을 강조하면서 세대(generation)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대이동에 관한 문제에서도 Burgess는 새롭게 변화된 사회 체계에서의 결혼이나 가족의 안정성 문제를 연구 하지만, Thomas는 그러한 이동이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들 두 사람에게서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어떤 변화의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세대에게서 발생한 변화의 원인을 사회적 변동에서 찾고자 했던 Thomas의 관점은 나중에 Life Course 관점을 발생하게 한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Thomas는 친족(kinship)이나 세대(gener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지만 연령(age)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적 측면에서나 역사적 측면에서거나 많이 다루지 않았다(Elder, 1991).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연결시키면서 그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긴 했지만 그러한 변화와 관련된 역동적인 관계 양상들을 포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즉, 가족을 '상호작용하는 人性의 결합체'로 보는 시각은 단지 한 시점이나 짧은 기간 동안의 가족역동성을 묘사할 뿐이었고, Thomas의 '생활사'나 '생활조직'의 개념도 시간의 진행에 따른 가족과 개인의 life course 를 만족스럽게 나타내지는 못하였다(Elder, 1984).

대공황과 세계대전 이후의 가족연구는 여전히 행동주의적 분석에 많이 의존하였지만, 그 분석의 개념적 틀은 구조기능론으로부터 가져왔다. 이 시기 가족 연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특징적 양상은 '구조주의적 분석으로부터의 행동주의 추론(behavioral inferences from structural analysis)'이라는 용어에서도 명료하게 파악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Parsons(1955)의 "고립된 핵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잘 나타난다(Elder, 1984). 그런데, Parsons 式의 思考와 가족연구의 많은 양적 조사(quantitative survey)에서 행해지는 구조주의적 분석은 가족을 전체 사회와 연결시키려고는 했지만, 가족행동이나 유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적 요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론과 실증적 연구가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Elder, 1981).

1950년 이후로, 미국의 가족연구는 구조주의 분석이 쇠퇴하면서 행동주의적 분석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즉, 산업변화와 가족형태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으로는 가족행동에서의 변화의 영향력을 추적할 수 없다는 비판 속에서, 가족을 구조화된 상황하에 놓여 있는 여러 행위자(actor)들의 집합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적 분석의 제 2 시기에 접어 들게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 이후의 가족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현상은 구조주의적 분석의 결점인 無시간적(atemporal), 정태적(static) 성격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發達的 접근(developmental approach)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조주의적 분석이 갖고 있는 결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발달적 접근에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었다. 즉, 발달적 접근에 입각한 연구들은 가족을 역사적 맥락과 사회변동의 과정 그리고 사건(event)내에서 고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Elder, 1984).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가족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가족과 개인의 복지가

사회의 제도나 구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변동을 가족연구의 중심 문제로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조는 서구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家族史 연구의 성과들(Ariès, 1962 ; Shorter, 1977 ; Stone, 1977 ; Anderson, 1980)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이로인해 社会史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들의 횡단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편견을 비판하면서 사회변동과 역사적 맥락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을 歷史社会学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가족 연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life course 내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가족과 여성, 청소년, 노인에 대한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적 이해는 당대 까지 이루어져 왔던 연구결과들을 대폭 수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반성은 家族史와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을 연결시키는 개념적 접근법 즉, 'Life Course Perspective'를 태동하게 하였다(Elder, 1981).

이상에서 우리는, 지극히 단순한 요약적 서술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191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의 가족연구상의 흐름을 살펴 보았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 보았듯이 미국의 가족연구는 각 시기마다 구조주의적 분석과 행동주의적 분석이라는, 분석수준에서 본다면,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상이한 두 가지 접근이 상호 교체되면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와 같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접근이 상호교체되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시기에 한쪽 분석수준이 그것의 장점과 함께 강조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 결점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 연구에서 Life Course 관점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의 성립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에서 사회학적 관점에 이론적 바탕을 두는 연구자들(특히, Elder)은 1960년대까지의 가족연구에서 이룩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 지혜란, 가족 연구는 거시적 수준이나 미시적 수준 그 어느 한 가지 접근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가족이란 그보다 더 큰 범주인 사회라는 구조체계의 한 단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사회와 가족 그리고 그들 관계의 사회적 체계나 구조적 속성을 강조하는 거시적인 구조주의적 분석이 요구되었으며, 동시에 가족은 그 자체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결합시켜 주는 기능 단위로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행동유형에 관심을 두는 미시적인 행동주의적 분석 역시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Life Course 관점이란 이와 같은 양자의 상대적 측면을 함께 포괄하려는 매우 애심적인 시도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1960년 이후 시기부터 진행되는 Life Course 관점은 人生의 복합성을 발견하였고 무엇보다도 life course에 있어서 社会史와 社会構造를 연결시키는 틀을 명백히하였다(Elder, 1991).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에서 Life Course 관점의 성립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연구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이론과 접근방법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하여 좀더 포괄적이면서 역동적인 이론적 틀(framework)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III. Life Course 관점의 개념틀

일반적으로 모든 학문적인 방법론의 체계 안에는 그것을 여타 다른 방법론들과 구별시켜 주는 그것만의 독특한 개념들이 포함돼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정은 Life Course 관점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닌데, Life Course 관점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적 체계 안에도 역시 그것만의 몇 가지 독특한 개념들이 들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Life Course 관점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개념들을 살펴 봄으로써 Life Course 관점 자체에 대한 이해의 한 방면으로 삼고자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Life Course 관점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은, 기존의 다른 접근 방법들에서 이미 사용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Life Course 관점의 성립과 함께 전혀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Life Course 관점은 그와같이 이미 존재했던 개념들을 그 체계 안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적용시켰다. Life Course 관점이 태동하게된 배경을 살펴 보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Life Course 접근방법은, 그 분석틀의 원류를 행동주의적(behavioral) 분석에 두고 있지만, 이전의 구조주의적 분석과 Burgess 를주축으로 하는 행동주의적 분석이 놓쳐 버렸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하나의 이론적지향(a theoretical orientation)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이론적 지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사용됐던 개념들은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Life Course 접근 방법이 기존의 분석틀에서 간과해 버렸던 것을 어떠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로써 접근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은 그것의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Life Course'라는 용어자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Life Course 접근 방법 안에 내포돼 있는 주요 개념들은 'Life Course'라는 용어의 개념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life course'는 "연령에따라 나뉘어지는 생활패턴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회의 역사적 변동에 의해 영향받기 쉽고 사회제도와 긴밀하게 연관(embedded)되는 속성"을 지닌다(Elder, 1991). 그런데, 'life course' 개념은, 生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종종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평생발달(Life Span Development)로 언급하고, 사회학자들은 life course로 언급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知의 관심은 서로 매우 다른데, 'life span'은 "정신內的인격체(intrapsychic persona)"에 상당한 관심을 두는 반면, 'life course'는 "사회적 인격체(social persona)"가 변화를 겪는 전환점을 강조한다(Hagestad & Neugarten, 1984). 다시 말해서 평생발

달접근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연령과 관련된 생물학적 행동적변화에 대한 記述과 설명에 관한 것(Elder, 1991)인 반면에, Life Course 관점은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며 함께 공유하는 연령과 관련된 전이(transition)에 중점을 두는것이다(Hagestad & Neugarten, 1984). 'life span'과 'life course'의 이와 같은 개념상의 강조점의 차이에서도 드러나듯이, Life Course 관점이란 변화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개인의 발달과 가족발달과의 관련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지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의 生의 전이(transition) 와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의 변화, 역사적 상황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변화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以前의 生의 변화가 그 후 生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Haraven, 1984). 그러므로, Life Course 접근의 목적은 가족이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 속에서 그리고 개인과 그 가족의 life course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下에, Life Course 접근은 가족과 개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연구에서 소홀히 했던 時間(temporal)의 개념을 강조 한다. 즉, Life Course 관점에서는, 가족변화가 가족원의 생활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보다 큰 환경이나 공동체에서의 역사적 변화를 다양하게 포함하게 되는데(Elder, 1975, 1983 ; Hagestad & Neugarten, 1984), 이러한 특징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령(age)과 시간(time)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령'과 '시간'의 그와 같은 결합은 가족원을 사회의 연령구조와 그들의 역사적 상황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Elder, 1984).

이와 같이 Life Course 관점에서는 시간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렇듯 연구 대상에 대한 시간 개념의 적용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Life Course 접근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Life Course 접근에서는 시간 개념을 단순히 가족이나 개인 그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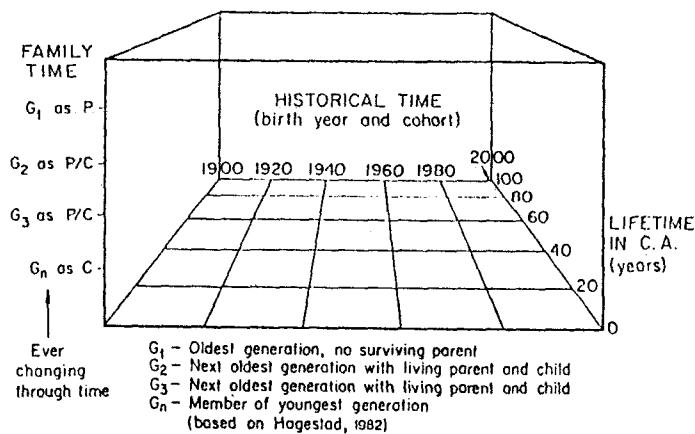


그림. 1 차원(생애시간, 가족시간, 역사 시간)에서의 life course 궤적.

출처 : Elder, G.H. Jr.(1984). Families, Kin and life course. In Panke, R.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P. 123.

과 함께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이다. 시간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총체적인 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Elder(1984)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위의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의 life course는 life time, family time, historical time의 3 차원 공간에 위치한다. 여기서, 생애시간(life time)이란 한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노화과정(aging process)에서의 위치를 말하며, 가족시간(family time)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사건(event : 예를 들면, 결혼, 자녀출산, 주거변동, 은퇴와 같은 것들)이나, 사회적 역할(자녀, 부모, 조부모 등으로서의 역할)에서의 위치를 뜻한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은 특정 ‘동일시기 출생집단(cohort)’의 구성원이 필연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동일한 역사적 맥락(전쟁이나 경제 대공황 등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Elder, 1984). 따라서, 가족의 한 구성원이 언제 태어났는가에 따라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사적 경험에 노출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이 포괄적이면서 총체적인

맥락에서의 각각의 시간은 정지한 것이 아니라 과정(process)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이든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든 그것은 어느 한 시점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과정을 거치며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Life Course 관점에서는, 시간의 그러한 진행적 과정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生의 전이(life transition) 혹은 가족전이(family transition)의 개념을 활용한다. Elder(1984)에 의하면, 전이(transition)란 “결혼, 이혼, 재혼, 주거이동, 고용-실직, 부모됨, 사망과 같은 이전보다 더 좋아진 혹은 더 나빠진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생활전이는 가족의 역동성과 시간성을 강조하는 Life Course 관점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족의 전이를 연구하는 데 있어 Thomas의 공적을 빼놓을 수 없다.

Thomas(1974)는 가족의 요구·기대·문화를 자원과 연관시킴으로써 왜 자원의 변화가 가족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힘을 지니는지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또 가족이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반응하며 무엇을 새로운 상황에 도입하는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과 가족전이간의 관계 즉, 개인의 생애에 있어 사건과 전이가 일어난 시기(timing)는 그 가족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의

무에 따라 조절되고 규제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Elder, 1984). 이렇듯, 기존의 가족발달적 관점이 生의 전이에 관해서 가족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그 순서(sequence)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Life Course 관점은 그와 같은 전이가 일어나게 된 의미에 대해 더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연령과 시간을 결합시키는 Life Course 관점의 시간 개념은 친족(kinship)의 특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Elder(1984)는 친족이라는 개념의 특성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배우자나 형제 자매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방계 친족의 집단과 생활 조직망(life networks)의 부분들로서의 연합집단(consociates), 둘째, 子女에서 부모, 조부모, 고조부모로 진행되는 세대들의 종적 확장, 셋째, 한 세대의 다른 세대에 의한 대체를 의미하는, 좀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파악된 가족주기 등을 말한다. 그리고 ‘친족’의 개념적 특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부터 ‘생활주기’, ‘세대’ 혹은 ‘세대적 위치’, ‘혈연’, ‘가족 시간’ 등의 개념이 도출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친족’의 개념 속에 함축된 바와 같이, Life Course 관점에서는 ‘친족’을 위에서와 같이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전의 발달적 접근의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 연구에서 진행되어 온 접근방법의 無맥락적(acontextual) 성격에 수정을 가한다. 즉, 발달적 접근에서의 가족주기단계는 자녀, 부모, 조부모 세대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전이에 대한 언급 없이 주로 자녀의 연령상태에 따른 국면(sequence)만을 언급(Hill, 1964; Duvall, 1971)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주기단계의 정태적인 성격은 실제 家族史나 그 가족의 경험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가족발달에 관해 마치 한장의 스냅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Elder, 1984). 이에 비해서, Life Course 관점에서는, 세대의 수직적 연결 속에 사람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족주기의 특정 단계와 더불어 그 개인의 가족시간(family time)을 나타내주며, 가족시간 구조에서 세대의 전환(즉, 자녀에서 부모, 부모에서 조부모 세대로의 전환)은

개인의 지위나 역할, 자아정체감,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발달적 관점에서는 가족역할을 단지 연령으로서만 구분하였던 것에 반해, Life Course 관점에서는 연령과 출생연도에 의해 개인과 가족역할을 구체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고찰을 통해 Life Course 관점의 연구 방법론적 틀을 조망해 본다면, 그것은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연령(age)과 시간(time)을 결합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생애시간, 가족시간, 역사적 시간을 맥락적(contextual)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낸 다음, 각 시간대의 과정 속에 발생하는 전이(transition)를 역시 맥락적으로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Life Course 관점은 개인 생애에서의 전이는 가족의 전이에, 가족의 전이는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Life Course 접근이란, 시간(time)과 과정(process) 그리고 맥락(context)의 개념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상호관련 속에서 총체적으로 포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ife Course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 변동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고 인생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그것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life course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지속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하겠다(Elder, 1991).

IV. Life Course 관점을 적용한 가족연구 고찰

미국의 경우, Life Course 관점과 관련된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양과 질에 있어 상당한 축적과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Life Course 관점이라는 하나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것들이며, 다른 하나는 Life Course 관점을 실제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들이다. 본고에서는 Life Course 관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가운데서 그 관점을 직접 적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고찰한 몇 편의

논문들을 살펴 봄으로써 가족연구에 있어서 Life Course 관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족연구에 있어서 Life Course 관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목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Life Course 관점이 주목하는 초점은, 가족과 친족의 life course가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점, 개인의 의무·권리·생활의 변화와 발달 문제에 있어 가족과 개인이 상호 역할을 한다는 점, 개인과 가족과 사회변동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 전생애에 걸쳐 초기의 사건이나 역할이 후기의 사건이나 역할과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Elder, 1984). 그러면 이제 Life Course 관점을 직접 적용한 실제 논문들에서 그와 같은 점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족연구의 영역에서 Life Course 관점을 적용한 연구자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단연코 Elder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Children of Great Depression〉(1974)를 필두로 하여 이제 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의 연구에서 Elder는 가족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려고 하였으며,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을 역사적 변동과 관련시킴으로써 가족과 개인적 발달을 연결시키려고 하였다(Elder, 1974). 이 연구에서 Elder는 자신의 그와 같은 관심의 초점을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변동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변동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인간의 삶이 사회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Elder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할 때,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동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공황의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父의 급격한 수입의 감소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母와 성인 자녀들이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父의 수입감소와 그로 인한 다른 가족원의 경제적 원조는 父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역할 모델로서의 아버지의 매력을 감소시켰고, 이러한 변화 즉, 사회적 모호성, 부모와 자

녀간의 갈등은 가족내 정서적 긴장이 늘어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아동기와 성인초기 때 겪은 경험은 생의 후기의 적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대공황기의 경기 침체의 파급효과로 인해 가족내에 야기됐던 정서적 긴장 속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에 따른 영향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없고 충돌적이었으며 처벌적이고 아이를 무시하는 성향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 Elder는, Liker & Cross 와의 공동연구(1984)에서, 대공황시기의 부모-자녀행동의 인과 관계에도 Life Course 관점을 적용시켰다. 최근까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母-자녀의 관계에만 집중되었고, 또한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제외된 자녀는 단지 母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父도 가족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가족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모-자녀간의 발달적 과정을 Life Course의 맥락 위에 위치시켰다. 즉,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행동은 부모·자녀의 호혜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가족의 상호작용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고찰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고찰의 결과, 경제적 손실과 가족관계와의 연관성이 밝혀졌는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은 부모의 독단성(arbitrary)과 극단적 양육태도를 야기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울화증, 호전적 행동 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Life Course’의 맥락 내에서 연령과 친족의 특성을 잘 조화시킨 Rossi & Rossi(1990)의 연구에서는 Boston 지역의 3 세대를 표집하여 life course가 가족체계 내에서 어떻게 상호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유대를 갖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표현해 나가게 하는 지표로써 애정적 밀착성과 가치관의 일치 등을 지표로 삼았는데,

그러한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즉, 성인자녀와 그들 부모간의 애정적 밀착도는 아동기 때의 가족생활의 질에 따라, 성인기 때 함께 공유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부모들의 노화(aging)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Elder, 1991).

Allen & Pickett(1987)은 가족의 life course 내에 감추어진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 Life Course 관점을 ‘生活史 면접’이라는 질적인 연구 전략과 접목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의 가족 연구에서 오랫 동안 인정되어 오지 않았던 독신녀와 無자녀, 장기간 과부로 지내온 여성의 life course에 대해 관심을 두고, 1910년대에 태어난 백인의 노동자 계층의 여성의 표집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이 연구의 동일시기출생집단(cohort)의 아동기 때의 열악한 환경과 교육 직업기회의 제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의 초기 경험, 성인기로 전이하는 시기에 대공황과 같은 사회 역사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바램을 뒤로 미루게 하고 가족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는 가족주의(familistic ideology)로 인해 결혼할 시기를 놓쳐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성인 남자의 life course에서 병역이 그 후의 결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보는 연구(Laufer & Gallops, 1985)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병역이라는 生의 전이와 전쟁에 노출된 정도가 결혼율, 초혼연령, 이혼율,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경우 군대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결혼을 더 많이 했으며, 월남전의 참전자들 가운데서도 전투와 격렬한 폭력(abusive)에 노출된 정도가 더욱 심했던 사람들의 경우 이혼율이 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참전자들 가운데서도 격렬한 폭력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혼율은 낮았으나 결혼불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면에 안정된 가족 상황에서의 남자는 이혼한 경험이 있거나 독신인 사람들보다도 심리적 행동적 장애가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 연구의 결과로서 도출되었다.

지극히 단편적이지만 이상에서 살펴 본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가족을 대상으로 Life Course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유일하게 단 한 편이나와 있는 실정인데, 한경혜(1990)의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 남자의 결혼연령의 변화에 관한 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 남자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게 된 현상에 대해 이제까지 그것을 ‘근대화 이론’에 기초한 ‘부모 영향력의 감소가 결혼 연령의 변화의 핵심(waning parental control as the locus of change)’에 있다는 관점으로 파악해 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에서의 결혼 연령의 변화는 부모의 영향력의 감소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자녀의 결혼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부모의 적극적인 장려나 혹은 묵인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 논문의 의의는, 이제까지 한국 남성의 결혼 연령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잠재해 있는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점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Life Course 관점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원용하여, 결혼 연령의 변화를 life course 상의 가족 전략의 일부로 관점하면서 ‘역사 시간’과 ‘가족 시간’과의 연계를 강조하여 고찰했다는 데 있다.

IV. 맷 음 말

이상에서 우리는 가족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이론적 지향으로 부각된 Life Course 관점 방법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Life Course 관점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른 모든 의미있는 연구 방법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라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것의 성립 배경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 틀에 대한 개념 파악과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용한 몇 편의 주요 논문들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취하려고 노력하였다. 본고에

서의 그와 같은 노력을, 개괄적인 이해에 내재된 근본적인 약점 자체를 해결해 주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러한 약점의 일부를 보완해 주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Life Course 관점의 경우, 그것은 20 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약 60 여년 동안에 이루어진 가족연구의 다양한 성과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지향의 심도나 범위에 있어서 매우 깊고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ife Course 관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도 달하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나 그것이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회학적 관점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관계 맺고 있는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가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Life Course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야기되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볼 때, 일본의 경우 그것에 대한 '연구 모임'이 결성된 이후 그 이해와 관심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이 논문의 마지막 단계인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Life Course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Life Course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간 개념의 역동적 적용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Life Course 관점을 새로운 이론적 지향이라 규정지었지만, 어느 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Life Course 관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사용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Life Course 관점을 새로운 이론적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그러한 개념들이 Life Course 관점에서는 좀더 역동적이면서도 정교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의 그와 같은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 개념일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관건이 바로 시간 개념—생애 시간(life time), 가족시간(family time)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이기 때문이다. Life Course 관점을 이와 같이 역사적 조건의 맥락에서 개인의 발달과 가족 발달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지향으로 파악할 때, Life Course 관점은 지금까지 수많은 변동을 겪어온 한국만의 특수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의 우리의 가족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지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望月 高・目黒依子・石原邦雄 (1987). 現代家族. 東京大學出版会.
- 2) Aderson, M. (1980). *Approaches to the history of the western family 1500-1914*.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 3) Allen, K.R., & Pickett, R.S. (1987). Forgotten streams in the family life course:utilization of qualitative retrospective interviews in the analysis of lifelong single women's family car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17-526.
- 4) Aries, P. (1962).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Penguin Books.
- 5)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 (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ss Press.
- 6) Clausen, J.A. (1986). The life course-a sociological persepective. New Jersey : Printice-Hall.
- 7) Elder, G.H., Jr.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8) Elder, G.H., Jr. (1975). Age differentiation and the life course.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 Palo Alto: Annual Reviews.
- 9) Elder, G.H., Jr. (1975b). Family history and the life course. In T.K. Hareven (ed.), *Transitions : The family and the life course in historical perspective*. Academic press.
- 10) Elder, G.H., Jr. (1981). History and the fmaily ; The discovery of complex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489-519.
- 11) Elder, G.H., Jr. (1984). Families, kin, and the life course ; a sociological pers-pектив. In Parke, R.D.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7. 80-136.

- 12) Elder, G.H., Jr. (1985). Life course dynamics. (ed.),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13) Elder, G.H., Jr. (1991). The life course. In E. F. Borgatta, & M. L. Borgatta (ed.), *The encyclopedia of sociology*.
- 14) Elder, G.H., Jr., Liker, J. K., & Cross, C.E.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Baltes, P.B., & Brim, O.C.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6. New York ; Academic Press. 109-158.
- 15) Goode, W.J. (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 Free Press.
- 16) Hagestad, G.H., & Neugarten, B.L. (1984). Age and the life course. In R. Binstock & E. Shanas (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Y ; Van Nostrand Reinhold.
- 17) Han, G.H. (1990). Social change, parental strategy and the timing of marriage of Korean me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 18) Hareven, T.K. (1984). Themes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amily. In Parke, R.D.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7. 137-178.
- 19) Hill, R. (1981). Theories and research designs linking family behavior and child development ; a critical overview.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2. 1-18.
- 20) Laufer, R.S., & Gallops, M.S. (1985). Life-course effects of vietnam combat and abusive violence ; marital pat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 839-853.
- 21) Long, S.O. (1987). *Family change and the life course in Japan*. China-Japan Program ornell University.
- 22) Parsons, T., & Bales, R.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Free Press.
- 23) Rossi, A.S. (1985). *Gender and the life course*. (eds.). New York ; Aldine Pub. Co.
- 24) Shorter, E. (1977).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 Basic Book, Inc.
- 25) Stone, L. 1977.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Penguin Book.
- 26) Thomas, W.I., & Znaniecki, F. (1974).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New York:Octagon.